

이란·이라크經濟와

戰後복구사업

I. 머리말

1980년 9월 開戰 이래 8년 가까이 끌어온 이란·이라크전쟁이 지난 8월 20일을 기해 전면적인 휴전에 들어갔다. 양국간에는 아직도 국경선 조정, 전쟁책임소재 규명 등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지니고 있어 휴전이 곧바로 평화협정의 체결이라는 종전단계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간의 협상이 장기간 지속된다 하더라도 전쟁의 실질적 종식이 가져올 경제적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西方世界 石油수요의 60% 이상이 통과하는 페르시아灣의 안전이 확보됨으로써 국제石油정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이란·이라크 양국의 수입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이들 양국에서 있게 될 전후복구사업은 침체일로에 있는 세계건설시황 및 플랜트시황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것 같다.

이란과 이라크의 복구사업규모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미 관심있는 국가들이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다. 西獨, 日本, 이탈리아, 美國 등이 상품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건설분야에까지 자금력과 기술을 배경으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고, 低賃勞動力을 바탕으로 한 中國, 파키스탄 등이 토목공사부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對中東 상품수출과 건설진출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것은 전쟁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사주재원 및 건설회사

들이 양국에서 이들 나라가 필요로 하는 물자를 공급하고 건설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많은 신뢰를 쌓았기 때문이다.

이하 本稿에서는 이란·이라크전쟁이 양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먼저 살펴보고 제한된 자료로나마 전후 양국이 취할 개발정책 방향과 戰災復舊投資 우선순위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II. 이란·이라크경제

1. 原油생산과 경제성장

(1) 原油생산

이란과 이라크에서의 石油생산은 여타 中東산유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양국의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의 역할을 담당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란의 경우 1970년부터 회교혁명이 발발하기 전의 해인 1978년까지 실질GDP는 연평균 약 10%에 달하는 속도로 성장하였고, 이라크 역시 1970년대 전기간을 통하여 약 10%의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적으로 石油産業의 급진장에 주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란의 原油생산량은 1970년의 3.8백만B/D에서 1970년대 중반의 기간 동안 매년 5.5백만B/D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증가하였고, 이라크의 原油생산량은 1970년의 1.6백만B/D에서 1979년에는 3.5백만B/D로 급증함으로써 石油産業 자체만으로도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중 油價도 급등하여 石油輸出收入이

〈表-1〉 주요 石油관련지표

(단위 : 백만 b/d, 억달러)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이란	産 油 量	1.47	1.32	2.39	2.44	2.03	2.19	2.04	2.29
	石油 수출량	0.94	0.85	1.80	1.78	1.58	1.61	1.46	1.60 ^{b)}
	石油 수출액	132.9	120.5	192.3	192.3	122.6	131.2	66.0	95.0 ^{a)}
이라크	産 油 量	2.65	0.90	1.01	1.10	1.22	1.40	1.88	2.08
	石油 수출량	2.49	0.80	0.86	0.79	0.92	1.16	1.46	1.70 ^{b)}
	石油 수출액	263.0	104.2	101.0	99.0	119.9	113.8	69.8	112.0 ^{a)}

註 : 1) EIU 推定値

2) OPEC 推定値

〈資料〉 EIU, [13], [15], FT Business Information Ltd., [16], OPEC, [21], PIW, [23] 등에 의거 작성

현저하게 늘어남으로써 이를 배경으로 양국이 모두 경제 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하게 되어 성장속도를 더욱 가속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 9월부터 시작되어 1988년 8월까지 근 8년을 끌어 온 이란·이라크 전쟁기간중 양국의 石油産業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란의 경우 산유량은 1979년의 3.2백만B/D에서 開戰 초년도인 1980년에 1.5백만B/D로 격감하였다가 휴전이 선포된 1988년 8월중에도 2.3백만B/D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라크의 산유량 역시 1979년의 3.5백만B/D에서 1980년의 2.7백만B/D와 1981년의 0.9백만B/D로 크게 감소된 이후 점차 증가추

세를 보였지만, 1988년 8월 현재 2.6백만B/D로 戰前의 약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란과 이라크의 산유량이 전쟁기간중 이와 같이 뚜렷하게 감소한 것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전쟁으로 인하여 양국의 石油생산시설 및 수송 시설이 대파되었기 때문이다. 이란의 주요 油田지대는 Ahvaz 등 상당수가 이라크와의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 油田지대의 石油생산시설이 전쟁발발과 더불어 대부분 피폭됨으로써 原油의 生産能力이 크게 감축되었다. 또한 전쟁말기에는 이란 최대의 原油저장 및 수송

〈表-2〉 이라크의 送油管 현황

	구 간	송유능력 (천 b/d)	길이 (km)	완공년도	비 고
Kirkuk-Tripoli	Kirkuk~Tripoli	400	857	1934	1961년 확장 1982년 4월 폐쇄
Kirkuk-Banias	Kirkuk~Banias	1,000	893	1952	1982년 이라크는 폐쇄, 시리아는 국제수송을 위해 부분적으로 사용
Strategic	Haditha~Rumaila	1,860	680	1976	새 이라크/터키 송유관에 석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
Rumaila-Fao	Rumaila~Fao	2,400	105	1976	폐쇄
Irap-Turkey	Kirkuk~Ceyhan	1,000	1,050	1977	1984년 0.7백만b/d에서 증가
Iraq-Turkey (2단계)	Kirkuk~Ceyhan	500	980	1987	
Rumaila-Yanbu (1단계)	Rumaila~Petroline PS-3 pump station	500	630	1985	
Haifa	Haditha~Haifa	100	700	..	폐쇄

〈資料〉 大韓石油協會, 石油協會報, 1988. 8

기지인 하르그섬의 제반시설이 폭격으로 완파됨으로써 이란의 산유량은 1988년 8월 현재 OPEC(석유수출국 기구)의 쿼타량인 2.4백만B/D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이라크의 경우에는 주로 石油수송로가 이란에 의해 제어당함으로써 감산이 불가피하였다. 이라크石油수출의 90% 이상을 담당하던 Fao 반도가 開戰 이듬해인 1981년에 대파되고, 1982년에는 시리아경유 송유관마저 폐쇄되는 등 石油수출능력이 크게 감축되었던 것이다. 이라크의 산유량은 1984년을 기점으로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1984년 4월에 터키經由 송유관의 확장공사(송유능력 0.7백만B/D→1.0백만B/D)가 완료되고, 1985년 10월에는 사우디經由 제1단계 송유관공사(0.5백만B/D)가 완료된데 이어 1987년 9월에는 터키를 경유하는 제2의 송유관공사가 완공된 것에 힘입은 것이다.

둘째는 세계石油시장에서의 原油공급 과잉현상이다. 두 차례에 걸친 석유위기로 油價가 급등함으로써 非OPEC 산유국들이 原油를 증산한 반면, 수요는 代替에너지의 개발, 石油節約型 산업의 출현 등으로 그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됨으로써 1982년말 이후 原油공급 과잉현상이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油價가 급격히 하락하게 되어 산유국은 산유량의 감축으로 油價의 유지에 급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밖에 이란의 경우에는 회교혁명으로 인한 외국인기술회사의 철수와 미국 등 주요선진국의 油壓施設 공급중단 등도 原油생산량의 감소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 중반 5.5백만B/D 수준을 유지하였던 이란의 산유량이 1980년에는 1.5백만B/D로 크게 감소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經濟成長

전쟁기간중 이란과 이라크 양국경제는 산유량의 감소로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산유량의 감소가 양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이란의 경우에는 산유량의 증감과 경제성장률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開戰 초년도인 1980년중 산유량이 전년의 3.2백만B/D에서 1.5백만B/D로 격감한 것에 주도되어 당해 회계년도(1980.3.21.~81.3.20)의 실질GDP가 약 14%에 달하는 負의 성장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81년과 1984년에는 산유

량이 前년에 비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GDP는 正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1985년에는 산유량이 증가하였는데도 負의 성장율을 시현하였다. 또한 1983년의 경우에는 산유량이 미증하였으나, 성장율은 매우 높았으며, 1986년에는 산유량의 감소폭이 매우 미미한 데 비해 實質GDP는 높은 負의 성장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이라크의 경우에도 산유량의 변화와 성장율의 크기 사이에 상관관계가 밀접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란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단순한 통계수치면에서만 볼 때 산유량의 변화와 성장률은 오히려 負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이란과는 차이가 있다.

1980년의 경우와 1987년의 경우에는 산유량의 변화와 성장율이 正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는 마치 예외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인다. 즉 1980년에는 산유량이 1979년의 3.5백만B/D에서 2.7백만B/D로 줄어들었는데도 正의 성장율을 시현하였으며, 1982~86년의 기간중에는 산유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GDP는 매우 큰 負의 성장율을 기록하였다.

전쟁기간중 산유량의 감소가 이란과 이라크 양국경제에 미친 이와 같은 파급효과의 차이는 양국의 경제관리 능력의 차이와 GNP, 즉 국력과 비교한 양국의 전쟁부담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이 점은 앞으로 양국의 전후복구시책과 개발정책방향을 가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이란과 이라크는 경제관리능력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란은 1970년대의 石油붐 시기에 어느 정도 인프라스트럭처가 구비된 바탕 위에서 回教社會主義가 경제정책에 도입되었다. 回教社會主義 체제하에서 이란은 경제정책의 기본목표를 ① 경제자립화의 달성 ② 輸入代替産業의 육성 ③ 石油의존적 경제구조의 탈피에 두고 산업전반의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재원을 적절히 배분하려고 노력하였다.

먼저 1983회계년도부터 1987회계년도까지 시행되었던 제1차 5개년추진계획에서는 투자재원이 농업부문에 16%, 광공업부문에 14%, 電源 및 수자원개발에 13%, 석유부문에 5%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배분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투자재원의 실제배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원칙이 대체로 적용되어 농업부문은 카스피해 연안지역에서의

〈表 - 3〉 實質 GDP성장률 및 產油量 증가율

(단위 :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이 란	실질 GDP	-14.1	1.5	15.2	13.1	0.2	-1.5	-8.0	1.0
	산 유 량	-53.5	-10.2	81.1	2.1	-16.8	7.9	-6.8	12.3
이 라 크	실질 GDP	2.1	-44.3	-3.2	-7.3	-8.0	-9.7	-8.0	1.7
	산 유 량	-23.9	-66.0	12.2	8.9	10.9	14.8	34.3	10.6

註 : 1) 會計年度(3. 21~翌年 3. 20) 基準

〈資料〉 EIU, [12], IMF, [17], OPEC, [21], PIW, [23] 등에 의거 작성

〈表 - 4〉 이란의 投資財源 배분계획(1983/84~87/88)

(단위 : 십억리알, %)

	투 자 액	구 성 비
農 業	2,204.9	15.5
石 油	747.0	5.3
鑛 工 業	1,970.9	13.9
電力·가스·用水	1,882.5	13.3
建 設 業	3,554.0	25.0
서 비 스 業	3,832.0	27.0
計	14,191.3	100.0

〈資料〉 EIU, [13]

신규 농지개척사업과 농업기계화사업이 추진되었고, 제조업부문에서는 石油化學工業, 纖維工業 등에서 수입대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업부문에서는 石油 이외에 銅 및 亞鉛鑛의 개발이 확대되어 왔다. 그 결과 비교적 균형되게 발달된 이란의 산업별 경제구조는(表-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쟁기간중 대체로 크게 변화되지 않아, 原油 생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1984년까지 正의 성장율을 유

〈表 - 5〉 이란의 산업구조

(단위 : %)

	80/81	81/82	82/83	83/84	84/85
農 業	14.1	15.3	14.3	12.6	13.1
石 油·가 스	12.9	10.4	17.3	15.5	13.2
鑛 工 業	20.2	20.2	19.4	20.0	20.6
서 비 스 業	52.8	54.1	49.0	51.9	53.1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 1974 / 75년도 不變價格 기준

〈資料〉 〈表 - 4〉와 같음.

지할 수 있었다. 다만 1986년의 경우에는 높은 負의 성장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油價폭락에 따른 石油輸出收

入의 격감과 확전으로 투자재원이 고갈된 것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라크의 경우에는 石油産業에 치우친 불균형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물론 경제계획에는 제조업과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배분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전쟁기간중 軍備의 확충에 소진되고 남은 투자재원마저 대부분 송유시설의 新·增設, 정유공장신설 등 石油關聯 산업 부문에 지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1982년 바그다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非同盟頂上會談의 준비를 위해 전쟁중임에도 불구하고 호텔의 신축, 도로의 확장 등에 많은 투자재원이 낭비되었다.

그 결과 전쟁기간중 제반 농산물의 생산은 戰前수준에 머물렀고, 제조업은 負의 성장을 기록하게 됨으로써 原油 생산의 감소는 곧 GNP의 축소로 연결되었다. 이라크의 산업에서 차지하는 농업과 광공업의 비중은 1980년의 7%와 5%에서 1987년에는 12%와 10%로 각각 높아졌으나, 이는 석유산업의 위축에 따른 구성비의 상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일 뿐 농업과 제조업의 성장결과와는 아니었다.

이란과 이라크 양국은 전쟁부담능력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기간중 연평균 무기구입액은 15.6억달러와 55.2억달러로 각각 추정되고 있다. 이는 양국의 GNP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이란의 경우에는 약 1% 수준이고 이라크의 경우에는 약 12% 수준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또한 양국의 연간 石油수출액과 비교해 보면 이란의 경우에는 12%이고 이라크의 경우에는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밖에도 인구면에서도 이라크는 이란의 1/3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16.3백만명에 불과하여 전쟁의 수행을 위한 인력동원으로 농업과 제조업 부문에서 노동력부족현상이 야기되었다.

〈表 - 6〉 이라크의 산업별 성장 추이

(단위 : %)

	成 長 率						對 GDP 구성비 ¹⁾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¹⁾	1980	1987
農 業	- 4.6	- 7.4	1.0	1.0	4.5	2.0	7.0	11.9
鑛 工 業	- 0.3	- 2.3	7.0	- 7.3	-11.6	4.9	5.0	10.0
서 비 스 業	- 5.6	-12.1	-26.2	-16.5	- 5.8	- 3.8	25.0	31.2

註 : 1) EIU 推定値
 〈資料〉 EIU, [15]

다시 말하면 이라크의 경우에는 國力이 전쟁에 총동원되었던 반면에 이란의 경우에는 일부분만 동원됨으로써 생산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투자재원과 노동력면에서 양국이 현저한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2. 對外去來

이란과 이라크의 경제관리능력의 차이는 전쟁기간중 양국의 대외거래 관리능력면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란은 외환수입의 범위내에서 외환지출이 이루어졌고, 이라크는 외환수입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서 외환지출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란의 외채 규모는 戰前의 100억달러 수준에서 1987년말에는 41억달러로 축소된 반면, 이라크의 외채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1987년말 현재 약 500억~7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

(1) 國際收支

전쟁기간중 이란과 이라크의 국제수지는 석유수출수입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국의 대외거래 관리능력의 차이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먼저 이란의 경상수지 추이를 보면 〈表-7〉과 같은데, 開戰初의 2개년도와 1986년을 제외하고는 경상수지가 대부분 흑자를 시현하였다.

이를 기간별로 나누어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1979년중 12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던 경상수지가 1980년과 1981년중 24억달러와 35억달러의 赤字로 각각 반전하였는데, 이는 石油의 수출수입이 산유시설의 파괴로 1979년의 205억달러에서 1980년과 1981년에는 133억달러와 121억달러로 각각 급감한 데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開戰에 따른 전쟁물자 및 비축물자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도 경상수지의 악화에 하나의 요인으로 가세하

〈表 - 7〉 이란의 경상수지 추이

(단위 : 억달러)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經 常 收 支	-24.4	-34.5	57.3	3.6	- 4.1	13.7	-48.7	9.3
貿 易 收 支	14.5	-13.1	79.0	34.8	23.6	42.1	-25.8	26.3
수 出	123.4	118.3	204.5	215.1	170.9	142.3	64.6	103.5
수 入	108.9	131.4	125.5	180.3	147.3	100.2	90.4	77.2
貿易外 및 移轉收支	-38.9	-21.4	-21.7	-31.2	-27.7	-28.4	-22.9	-17.0

註 : 1980~84년간은 會計年度(3. 21~翌年 3. 20) 기준으로 IMF자료에 따른 것이며, 1985~87년간은 FT Business Information Ltd. 자료에 따른 것임.

〈資料〉 FT Business Information Ltd., [16] 및 IMF, [17]에 의거 작성

1) 日本 中東經濟研究所 추정치임.

2) 이라크의 외채규모는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으나 對아랍圈 채무 약 350억달러를 포함, 500억~7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國際金融 전문가들은 대체로 약 600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음.

(表 - 8) 이라크의 經常收支 추이

(단위 : 억달러)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經 常 收 支	145.0	- 106.0	- 191.0	-76.0	-47.0	-26.6	-72.8	-28.6
貿 易 收 支	144.6	- 105.6	- 114.0	-20.0	- 7.0	11.2	-32.8	15.8
수 출	295.1	118.3	98.0	80.0	91.0	125.2	68.2	119.8
수 입	150.5	223.9	212.0	100.0	98.0	114.0	101.0	104.0
貿易外 및 移轉收支	0.4	- 0.4	-77.0	-56.0	-40.0	-37.8	-40.0	-44.4

註 1) 國防部門 제외

〈資料〉 EIU, [15] 및 FT Business Information Ltd., [16]에 의거 작성

었다. 한편 이란의 경상수지는 油價폭락으로 석유수출수입이 급감한 1986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黑字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는 무역을 국가가 독점하고 엄격한 외환 통제로 일반물자의 수입을 가능한 억제하면서 전쟁중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구입한 것에 힘입은 것이다. 이밖에 건설공사도 전쟁피해시설의 복구와 精油 등 전쟁수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수입대체 산업시설의 新·增設에 국한함으로써 무역외수지의 흑자 폭을 연간 20억~30억달러의 범위내로 억제한 것도 이란의 경상수지가 黑字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란과는 대조적으로 이라크의 경상수지는 <表-8>에 나타난 바와 같이, 石油輸出入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던 1981년 이후부터 계속 큰 폭의 赤字를 시현하였는바,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전초기에는 무역수지가 대규모의 적자를 보임으로써 경상수지의 악화를 주도하였다. 石油수출수입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은 이라크가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오관하고 精油工場 등 석유관련 시설의 증설을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앞서 언급한 바가 있는 1982년 非同盟頂上會談의 준비를 위해 투자지출을 당초계획보다 크게 늘린 데 기인하였다.

둘째, 전쟁이 장기소모전으로 들어간 1983년 이후부터는 무역외수지의 적자에 의해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였는데, 이는 개전초기의 경상수지적자가 대부분 外債에 의해 보전됨으로써 대외이자지급이 크게 늘어났고 송유시설의 증설 등 건설공사의 추진으로 외국근로자들의 송금이 늘어난 때문이었다.

이밖에 연간 약 55억달러에 달하는 무기구입액을 포함

시킨다면 이라크의 경상수지 적자폭은 더욱 큰 것으로 추정된다.

(2) 對外債務

이란과 이라크는 1970년대에 막대한 石油收入에 힘입어 상당한 대외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 전비부담과 石油收入의 감소로 인하여 그 규모가 계속 줄어들었다.

이란은 1970년말에 146억달러에 외환을 포함해 총 152억달러에 달하는 대외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란은 해외차입에 의존하기보다는 보유외환이나 해외자산을 사용하여 전비에 충당한 결과 대외지급준비 자산은 1980년에 57억달러로 감소했고, 1986년에는 4억달러의 SDR을 포함해 51억달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OECD통계에 따르면 이란의 외채규모는 <表-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외지급준비자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戰前 100억달러 수준에서 1987년에는 41억달러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회고혁명 정부가 외채의 배격을 위해 외자 도입을 강력히 억제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란과는 달리 이라크는 이란보다 3배 이상에 이르는 무기구입부담으로 戰前 350억달러에 달하던 對外支給準備資産이 전쟁초기에 이미 고갈되어 부족한 外換을 해외로부터 차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이라크의 외채규모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인근 아랍국가들이 제공한 직접원조와 중립지대에서 생산된 原油판매 대금 약 350달러를 포함해 현재 약 500억~7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表 - 9〉 이란 · 이라크의 外債 추이

(단위 : 억달러)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이 란	長期債務	41.0	33.6	24.5	20.2	11.9	...
	(讓許性)	5.6	3.8	2.8	2.7	2.7	...
	(非讓許性)	35.4	29.8	21.7	17.5	9.2	...
	短期債務	42.5	36.0	21.3	30.2	29.4	...
	計	83.5	69.7	45.8	50.4	41.3	41.0
이 라 크	長期債務	29.1	38.8	47.9	64.1	72.3	...
	(讓許性)	9.9	8.7	7.1	7.6	8.3	...
	(非讓許性)	19.2	30.1	40.8	56.4	64.0	...
	短期債務	24.1	17.9	23.5	40.8	56.8	...
	計	53.1	56.7	71.4	104.8	129.1	142.0

〈資料〉 OECD, [19] 및 OECD/BIS, [20]에 의거 작성

Ⅲ. 休戰後의 복구사업

이란과 이라크는 아직 어느 나라도 휴전후의 복구사업 규모와 내용에 관하여 발표한 바가 없다. 다만, 전쟁기간 중 양국이 그들의 경제를 운용해 왔던 방식과 전후에 발표된 단편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들 나라의 향후 개발 정책방향을 유추해 봄으로써 복구사업에 대한 투자우선 순위를 추측할 수 밖에 없다. 전후 이란과 이라크 양국의 개발정책방향과 투자우선순위를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 란

(1) 開發政策의 방향

回教革命政府는 1983년에 20년 장기개발계획(1983/84~2002/03)을 수립하였는데, 그 기본목표는 ① 국민경제의 石油依存度 축소 ② 농산물의 완전 자급자족달성 ③ 회교국가이념의 확립에 두어지고 있다.

한편 이 장기계획은 매 5년마다 中期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바, 전쟁기간중인 1983/84~1987/88년중 실시되었던 제1차 추진계획기간중에는 이와 같은 기본목표를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세부지침이 확정되었다.

첫째, 石油依存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주도하에 수입대체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非石油製品의 수출확대정책을 추진한다.

둘째, 농산물을 자급자족하기 위해 카스피海 연안을 중심으로 하여 대규모 신규농토를 조성하며, 농업의 기계화도 아울러 추진한다.

셋째, 이슬람 혁명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외자도입의 억제 등으로 대외의존도를 축소하며, 諸産業의 자국화(localization) 정책을 강화한다.

外資에 의존하지 않고 石油依存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이란의 노력은 전쟁의 장기화와 石油輸出收入의 감소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전쟁기간중 비교적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섬유산업이 石油産業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철강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으며, 銅, 亞鉛 등의 非鐵金屬은 제련되어 상당량이 수출되는 한편, 精油製品, 일부 有機化學製品 등은 수입대체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농산물의 생산량도 다소 증가하여 보리의 생산량은 1980회계년도중의 1.3백만톤에서 1984회계년도에는 2.3백만톤으로 약 80% 증가하였고, 밀과 쌀 및 면화의 생산량은 같은 기간중 각각 8%, 25% 및 60% 늘어났으며, 트랙터의 보급대수도 1974회계년도의 44천대에서 1984년에는 97천대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전쟁기간중 외채가 오히려 감소되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1988/89~1992/93회계년도중 실시될 이란의 제2차 추진계획은 1988/89회계년도(1988.3.21.~89.3.20.) 초까지 확정되어야 했으나, 戰時에는 이라크의 대공세로 인하여, 그리고 戰後에는 財源조달문제와 정부내 強·穩

派間의 투자우선순위를 둘러싼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20년 장기계획상의 기본목표는 수정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란이 당면한 經濟·社會의 현안문제와 戰後 발표된 자료를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향후 開發政策의 方向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대외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외자도입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다. 특히 美國과 소련 등 초강대국의 세력침투를 경계하여 이들로부터의 차관도입은 강력하게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호메이니翁은 수차례 걸쳐 이란의 경제복구를 미·소에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둘째, 종전과 마찬가지로 高油價政策을 견지하며, OPEC의 쿼타시스템과 油價體系의 유지를 위해 여타 OPEC회원국과의 협조를 계속할 것이다. 이는 이란의 脫石油政策과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국제석유정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OPEC이 산유쿼타를 지키지 못하면 油價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石油販賣收入이 오히려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란 石油部의 Ardebili 國際問題擔當 次官은 지난 9월 초에 이란의 산유능력이 6개월 이내에 4.0백만B/D로 회복될 것이지만 OPEC의 對이란 쿼타량 2.4백만B/D를 준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바 있다.³¹⁾

셋째, 경제의 자립화를 계속 추진할 목적으로 재원조달가능 범위내에서 수입대체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다. 精油産業은 내수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수출산업으로까지 육성할 것으로 보이며, 鐵鋼·肥料·시멘트·電力 등 기간산업분야에서의 수입대체를 정부주도하에 적극 추진하는 외에 纖維産業, 石油化學工業 등 주요산업에서의 수입대체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째, 민간부문의 경제참여폭 확대가 예상된다. 외자도입의 억제, 石油販賣收入 증대의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재원과 외화자금의 부족한 상황 아래에서 戰災復舊需要와 개발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동원이 필수적이다. 生必需品 수입, 수입대체를 위한 中小플랜트의 건설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것으로 보인다. 호메이니翁은 이미 지난 8월 30일자로 국가감독하에 민간무역을 허용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민간 利潤추구할

동(기업활동)도 정부감독하에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란 鑛工業銀行(Bank San'at va Madan)은 민간자금을 투자화하기 위해 이 銀行株式과 보유 관계사주식을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다섯째, 농산물의 자급자족을 위해 용수개발, 농경지의 확대, 영농기계화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을 축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우선 당장은 戰場에서 복귀될 능력을 농촌에서 흡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이란정부는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피스타치오 등 전통농산물의 수출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건설분야에서도 자국화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이미 토목, 주택 등의 분야에서는 자체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분야는 앞으로 예상되는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대부분 자국기업에게 맡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장래에는 자국기업이 플랜트건설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戰後 플랜트건설공사에서 기술이전을 가장 중요한 계약조건으로 하나로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

이밖에 예상되는 정책은 일종의 敗戰으로 볼 수 있는 전쟁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생활보장, 주택문제 완화 등으로 회교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과 선진국에 대한 경제의 의존비중을 낮추고 동시에 부족한 투자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韓國, 터키 등의 中進國과 東歐國에까지 경제협력선을 다변화하는 정책을 들 수 있겠다.

(2) 復舊事業규모와 투자우선순위

전쟁의 실질적인 종식과 더불어 이란은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生必需品의 수입을 늘려야 하고, 수입대체산업의 가동률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기계·부품과 原材料의 輸入을 증가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시설의 복구를 위해서도, 또한 農·工施設의 擴充을 통한 경제자립기반의 조성을 위해서도 거액의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戰後 이란의 復舊事業規模는 이와 같은 자금수요측의 요인보다는 자금공급측의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까닭은 現 회교정부가 외세의 침투를

경계하여 외자도입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 財源調達展望

이란의 外貨資金 調達源은 크게 보아 原油販賣收入 및 非石油輸出收入 등 자체조달자금과 세계은행차관, 대외공공차관, 국제민간금융기관 차입 등 외부조달자금으로 나눌 수 있다.

① 原油販賣收入 : 최근의 油價동향에서 보는 바와 같이, OPEC가 産油쿼타를 지키지 못하면 油價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石油수출국의 原油販賣代金은 산유량 및 수출량을 증가시킬 경우 오히려 줄어들 위험이 있다. 이란의 산유능력은 향후 2~3년 안에 약 4.5백만B/D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으나, 이란정부는 이와 같은 國際石油정세를 감안하여 OPEC의 쿼타제도와 유가체제에 적극 협조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이란의 産油쿼타는 약 2.4백만B/D이며, 이란의 국내 原油소비량은 약 0.7백만B/D이기 때문에 연간 石油輸出收入은 약 100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향후 油價가 1987년 평균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여타 OPEC회원국의 협조로 이란의 산유쿼타가 3.0백만B/D 수준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란의 연간 原油販賣收入은 140억달러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② 非石油輸出 : 이란이 수출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품목은 카페트와 피스타치오 및 精油能力이 회복된다면 精油製品分野이다. 정제능력이 향후 1~2년 안에 회복이 가능하여 석유제품의 수출이 늘어나겠지만, OPEC의 쿼타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석유제품의 수출증대는 곧 原油의 판매대금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한편 카페트와 피스타치오 등 이란의 전통상품은 그 시장개척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 연간 약 5억~10억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非石油製品의 輸出收入을 크게 늘릴 수 없을 것이다.

③ 世界銀行借款 : 세계은행은 이란에 대한 긴급복구부리로 매년 40억달러를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에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美國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를 전액 지원받기는 어렵다.

④ 對外公共借款 : 이란정부는 외세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차관의 도입을 적극 억제하고 있다.

⑤ 對外民間商業借款 : 민간베이스에 의한 공급자신용

에 대해서는 이란정부가 비교적 유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란이 조달할 수 있는 외화자금의 연평균액은 原油販賣收入 140억 달러, 非石油製品 輸出收入 15억달러, 世界銀行차관 20억 달러, 대외 민간상업차관 25억달러, BIS예치자금 등 기타 자금 40억달러 등 총 240억달러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나. 商品輸入 및 建設發注展望

이란경제의 대외거래면에서의 특징적인 현상은 경상수지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도록 운용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쟁중 이란의 연평균 수입액은 약 130억달러로서 전쟁초기에 비해 石油收入이 감소하였던 1986년부터 상품수입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戰前 4개년 동안 연평균 약 40억달러에 달하였던 건설발주액도 전쟁기간중 연평균 약 5억달러로 대폭 축소되었다.

外換收入의 범위내에서 외환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이란의 대외거래운용원칙은 戰後에도 준수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연평균 財源조달가능액 약 240억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품수입과 건설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商品수입은 戰後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까닭은 우선 상품시장의 경우 生必需品의 수입을 증대시켜 물가와 민생의 안정을 기할 수 밖에 없고, 輸入代替施設의 가동을 위해 기계 및 부품과 原料商品의 수입을 늘려야 하며, 플랜트 및 建設부문에 필요한 자재의 구입을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表-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란의 商品輸入규모에 대해 産業研究院은 1989~93년중 연평균 약 200억달러로 전망하였으며, KOTRA

<表-10> 이란의 商品輸入 전망

(단위 : 억달러)

	1989	1990	1991	1992	1993
KIET	135	165	200	240	280
KOTRA ¹⁾	180	220	270	320	...

註 : 1) KOTRA는 대상기간을 歷年基準으로 하지 않고 終戰後 1차, 2차, 3차, 4차년도로 각각 나누어 전망하였음.

<資料> 産業研究院, [5] 및 大韓貿易振興公社, [1]에 의거 작성

테헤란 貿易館은 종전후 4개년 동안 연평균 약 250억달러로 전망하였는데, 이란의 재원조달능력으로 보아 産業研究院의 전망이 보다 실제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KOTRA 테헤란 貿易館이 전망한 對이란 상품수출 유망분야는 <표-11>과 같다.

<表-11> 對이란 商品輸出 有望분야

(단위: 백만달러)

	終戰後 시장규모	우리나라 進出可能額
○電 子 製 品		
家庭用品	1,000	20
半導體, 컴퓨터周邊器機	500	20
○重 電 氣 製 品		
發電機, 모 터	1,000	100
變壓器, 送電器機	200	30
電氣回路開閉器	100	10
電信케이블	500	100
電球, 램프	100	10
○運 搬 器 機		
自動車 및 부품	1,000	50
鐵道車輛 및 부품	1,000	50
선박	1,000	100
○電 信 電 話 裝 備		
有線 및 電信電話裝備	1,000	100
通信裝備(無線)	500	50
○化 學 製 品		
肥料, 殺蟲劑	800	80
PE, PP 등 有機原料	1,000	150
기타	500	30
○織 維		
人造纖維絲	500	100
人造纖維織物	500	30
○鐵 鋼		
鋼棒	100	10
스테인리스鋼	200	20
鋼板	800	100
열간壓延鋼板	500	80
鋼管	600	100
기타	200	30
○非 鐵 金 屬		
鑄鍛造製品	200	30
○타 이 어 류 브	500	100

<資料> 大韓貿易振興公社, [2]

戰後 이란의 연간 상품수입액을 약 200억달러로 보았을 때 약 40억달러의 外貨資金을 건설부문에 가용할 수 있게 되므로 건설부문에서 자재와 용역의 비율을 5대5정도로 본다면 연평균 건설발주액은 80억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건설발주전망은 국내의 조사기관이 대체로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産業研究院은 1989~93년간 연평균 건설발주규모를 약 90억~100억달러로 전망했으며, KOTRA 테헤란貿易館은 종전후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연평균 약 110억달러로 전망하였고, 美國의 워튼經濟研究所(Wharton Econometric Forecasting Associates: WEFA) 역시 1989~92년중 연평균 약 110억달러의 건설공사가 이란에서 발주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이란의 건설수요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주요 시설의 피해규모는 테헤란대학의 분석에 따르면 <표-12>와 같이 877억달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전쟁기간중 억제되어 왔던 각종 개발수요와 주택, 병원 등의 복지시설수요를 합친다면 이란의 연간 건설발주전망치인 80억달러는 매우 작은 규모이다.

따라서 이란정부는 재원조달면에서의 한계 때문에 제한된 분야에 투자자금을 우선 배분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서 이미 언급한 이란의 戰後 개발정책의 방향을 감안할 때 투자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第1順位는 주택, 병원, 재활교육기관 등의 사회복지

<表-12> 이란의 戰爭被害 규모

(단위: 억달러)

	피 해 액
주요 施設 分野	877
工 業	88
石 油	661
에 너 지	47
通 信	3
住宅·都市計劃	30
道路·運送	48
其他 分野	1,047
計	1,924

<資料> 테헤란大學

〈表 - 13〉 戰後 이란의 有望 복구사업 분야

	사 업 분 야	비 고
石油 관련공사	○정유공장건설 및 복구 ○수출송유관 건설 ○천연가스 개발사업	반다르아바스, 아락, 아바단 등 타헤리港 연결 송유관, 大蘇聯가스수출 파이프라인 아그하르 / 달란 가스개발 등
石油化學플랜트	○아락 석유화학단지 ○이스파한 석유화학단지 ○시라즈 석유화학단지 ○라지 화학단지	5년간 20억불 투자계획 (PVC, PP, PE 등 생산) 5년간 20억불 투자 (벤젠, 톨루엔 등 생산) 5년간 40억불 투자 (메타놀 등 기초화학품) 50억불 투자예상 (비료, 설파 포스페이트 생산)
電 原 개 발	○화력발전소 건설 ○수력발전소 건설	가르브, 아와즈, 팔스, 티브리즈 발전소 Siah-Bisheh, Taleghan 댐, Lavarak 양수발전소, Karun 댐, Chomrood 댐
사 회 간 접 자 본	○철도부설 공사 ○항만확장 공사	국토 전역 반다르 아바스港 등

〈資料〉 大韓商工會議所, [4]

지시설 분야와 전쟁중 파괴되었거나 공사가 중단된 産油·送油 및 精油施設 분야가 될 것이다. 전쟁의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완화하고 인구의 대도시집중을 방지하며, 이란이 시공가능한 주력분야에 투자확대로 실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우선투자가 불가피하다. 또한 안정된 外貨收入源을 확보하여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石油 및 그 관련시설의 복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투자 第2順位는 전력,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과 용수개발, 농경지 확대 등의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에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 輸入代替産業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력공급의 증대가 필요하며, 노동력을 농촌에서 흡수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戰後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石油化學 및 鐵鋼製品의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것에도 이란은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輸入代替를 목적으로 한 中小型플랜트분야는 가능한 민간부문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할 것으로 보이며, 도로, 하수도 등 토목공사부문에 대한 외화자금의 배정은 가능한 한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有望復舊事業分野는 〈表-13〉과 같다.

2. 이라크

(1) 開發政策의 방향

이라크는 1970년에 시작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부터 개발정책의 최종목표를 石油의존經濟로부터의 탈피에 두어 왔으나 아직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제3차 개발기간(1970~75년) 중에는 농업개발에 역점이 두어졌지만 石油輸出收入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티그리스·유프라테스 兩江의 本·支流 홍수통제시설과 저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쳤다. 또한 제4차 개발기간(1976~80년) 중에도 農·工業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한 경제구조의 다양화가 기본목표로 설정되었으나 대부분의 재원은 송유관설치, 精油 등을 중심으로 한 石油化學製品플랜트의 건설 및 기타 石油關聯施設의 확장에 투입되었으며, 개전초기에도 이와 같은 투자경향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전쟁이 장기소모전으로 접어 든 1982년부터는 모든 국력이 전쟁수행을 위해 투입됨으로써 경제개발계획이 중단되었다.

이라크는 1977년 6월에 ① 국민소득수준 향상 ② 생산시설의 확대 ③ 기간산업개발 ④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⑤ 인력개발을 통한 사회개혁 등을 기본목표로 하는 經濟社會 開發計劃法까지 제정하였다. 그러나 경제운용능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여 이라크는 石油依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戰後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 같다.

우선 우려되는 것이 농업과 제조업의 생산기반 취약으

로 이 부분에서의 공급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후에 나타날 왕성한 수요를 生必品の 輸入으로 보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가의 暴騰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라크는 1980년대초 이후 공식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의 식료품 및 輕工業製品の 수입총액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라크가 필요로 하는 물자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OECD諸國의 對이라크 수출통계에 따르면, <表-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4년의 경우 식료품이 11.5억달러로서 전체의 21%, 輕工業製品이 5.6억달러로서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表-14> 이라크의 對 OECD 商品輸入 구조

(단위 : 백만달러, %)

	1978		1984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食 料 品	338	7.5	1,153	20.7
飲 料 및 담 배	18	0.4	72	1.3
非 食 用 原 材 料	39	0.9	91	1.6
燃 料 및 潤 滑 油	10	0.2	25	0.4
油 脂 및 왁 스	18	0.4	36	0.7
化 學 關 聯 製 品	272	6.0	597	10.7
工 業 原 料	1,124	24.8	939	16.8
機 械 및 軍 需 裝 備	2,451	54.2	2,228	40.0
雜 製 品	216	4.8	336	6.0
기 타	35	0.8	93	0.7
計	4,525	100.0	5,575	100.0

註 : 分類基準은 SITC 1 digit에 의한 大分類임.
<資料> 産業研究院, [5]

戰後의 야기될 두번째 문제로서는 경상수지적자폭의 확대와 그에 따른 외채의 급증이다. 이라크에 있어서 石油輸出은 총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國際石油情勢下에서는 石油輸出收入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반면에 상품수입과 戰後復舊 및 개발을 위한 투자지출이 급증할 전망이어서 전쟁기간중 지출된 연평균 무기구입액 55억달러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경상수지적자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1987년말 현재 약 500억~700억달러로 추정되는 外債가 향후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라크는 이밖에 사회면에서도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

가 있다.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전쟁지역으로부터의 피난민이동으로 주택문제가 심각하고, 病床數가 부족하여 전쟁기간중 부상당한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년층인구가 크게 늘고 있어 보건 및 교육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農 · 工業의 생산기반이 미미한 상태 아래서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할 입장에 있다.

이라크가 안고 있는 이상과 같은 경제면에서의 문제점과 사회면에서의 현안문제를 고려할 때 향후 이라크의 개발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거액의 외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정책의 기조를 진속의 완화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란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믿는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고 있는 수요충족 욕구를 정치력으로 더 이상 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물가폭등을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生必品 輸入을 늘리는 한편, 장기적으로 농업분야와 輸入代替産業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세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문의 경제참여폭을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수입에 대해 그동안 실시해 왔던 외환통제를 완화시킬 것 같고, 輸入代替産業에 있어서의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으로 보이며, 1987년 이후 실시되고 있는 행정개혁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째, 石油政策에 있어서는 이란과는 달리 油價維持政策보다는 산유량 증대정책을 과거와 마찬가지로 채택할 전망이다. 이라크의 産油쿼타는 1.5백만B/D에 불과하나, 原油생산량은 1987년중 2.1백만B/D였으며, 1988년 8월 중에도 2.6백만B/D를 기록하였다.

다섯째, 國際商業金融機關으로부터의 차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라크는 戰後 소외자금의 상당부분을 아랍圈으로부터의 援助性 차관과 기타국으로부터의 공급자신용에 의해 조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라크는 中東지역에서의 이라크의 전략적 가치와 이 나라가 갖고 있는 경제적 잠재력을 심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투자재원의 배분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 병원 및 보건시설, 그리고 교육시설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2) 復舊事業규모와 投資優先순위

가. 財源調達 전망

이라크의 최대 原油생산능력은 현재 2.8백만B/D이나 산유시설이 완전히 복구되는 경우에는 4.0백만B/D까지 확대될 수 있다. 한편 송유능력은 2.5백만B/D 규모의 페르시아灣 送油施設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송유

관시설의 증설로 2.2백만B/D에 이르고 있으며, 1989년 9월에 사우디經由 송유관 IPSA 2(송유능력 1백만B/D)가 완공되고 걸프灣을 통해 積出이 재개된다면 5.0백만B/D를 초과하게 된다. 그리고 이라크의 OPEC산유쿼타량은 1.5백만B/D에 불과하나, 이라크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7년에 2.1백만B/D

〈表-15〉 이라크의 輸入擴大 豫상품목

	品 目
基 準 1 ¹⁾	정당제품(사탕무우 및 사탕수수) 제재목, 칩엽수, 의약품(기타 의약품) 철강열강압연 또는 압출봉(선재 제외, 高炭素鋼 合金鋼 제외) 유압식 변압기, 도로트랙터
基 準 2 ²⁾	미제분 밀(스펠트 포함) 및 메슬린 도정쌀, 보통담배 버스 및 트럭용 공기타이어 무계목관·鐵鋼·관용 블랭크 기타 鐵鋼의 관(주철관, 고압수력도관 제외) 鐵鋼의 관 부착물 鐵鋼의 구조물 및 구조물 부품 피스톤 내연기관이 결합된 발전기 세트 차륜식 트랙터 로드롤러, 기계추진식 기계식 삽 및 굴착기(자체추진식) 에어컨디셔너 및 同部分品 텔레비전, 라디오, 무선전신 전화기 송신 및 송수신 장치 절연전선, 케이블, 봉, 띠 및 유사제품 승용자동차(여객차량 제외, 화물겸용 포함) 화물자동차, 도로트랙터
基 準 3 ³⁾	주철관 알루미늄계 구조물 및 구조물 部分品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鐵鋼材製品 液体 및 가스여과 및 정화기 컬러TV 수상기 유선전화 및 전신장비 무선항해 조력 및 레이다裝置, 원격제어용 무선장치 달리 분류되지 않는 측정검사기

註：1) 戰爭時 對OECD總輸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戰前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終戰後 정상적인 경제하에서는 그 비중이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2) 戰前·中 모두 對OECD總輸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종전후에도 이러한 추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3) 戰爭中 수입비중이 증가한 품목으로 終戰과 관련없이 계속 높은 비중유지가 예상되는 품목
 〈資料〉〈表-14〉와 같음.

D, 1988년 8월에 2.6백만B/D의 原油를 생산하였다.

한편, 이라크는 현재와 같은 國際石油情勢下에서 무모하게 原油를 증산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인근 산유국으로부터 전제복구를 위한 자금지원이 약속된다면 原油의 증산정책을 다소 억제하여 앞으로는 이란의 산유량과 같은 3.0백만B/D의 原油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라크의 原油消費量은 약 0.4백만B/D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油價가 향후에도 1987년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연평균 石油輸出收入은 약 170억 달러에 이를 전

망이다.

이라크가 기대하고 있는 이밖의 외화자금 조달원로서는 인근 아랍圈으로부터의 원조성 차관과 世界銀行 차관을 들 수 있다. 인근 아랍圈으로부터의 원조성 차관규모가 전쟁기간중의 수준을 유지해 준다면 연간 약 4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게 되고, 世界銀行 차관이 이란과 같은 연간 20억달러 규모로 제공된다면 이라크의 연간 總外貨調達可能額은 약 23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나. 商品輸入 및 建設發注 전망

이라크는 이란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외거래를 불건전하게 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石油輸出收入이 이란보다 적어음에도 불구하고 전쟁기간중 이라크의 연평균 수입액은 이란보다 10억달러가 많은 142억달러에 달하였으며, 건설발주액은 연평균 41억달러로 이란의 5억달러보다 약 8배나 많았다.

전쟁기간중 이와 같은 對外去來運用 성향은 전후에도 지속될 것 같다. 특히 상품수입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

〈表 - 16〉 이라크의 建設發注 전망

(단위 : 억달러)

	1989	1990	1991	1992	1993
産業研究院	55~60	65~70	70~80	80~85	85~90
海外建設協會	50.4	56.2	64.2	70.8	80.0

〈資料〉産業研究院, [5] 및 海外建設協會, [8]에 의거 작성

〈表 - 17〉 이라크의 戰後 復舊推進 豫상사업

	工 事 費	備 考
바스라 도시건설	32억달러	- 시어과 중심도시 - 都市 完建 파괴 - 바스라 市民士氣 양양 - 이라크의 關門
바스라 石油化學단지	30억달러	第 1, 2, 3 肥料工場 補修 포함 (1967~1979 完工) 生産능력 800천톤
바스라항만 (Shatt Al-Arab)	未 定	
第 5 號 비료공장	5 億달러	新規發注 豫상
요르단 經由 송유관(50만B/D)	未 定	
GCC 國家連結 철도 및 도로공사	未 定	
精油化學園地 조성(Kerrala)	45억달러	
新都市 建設사업 Madaen Tharhar Zubaidiya 바그다드市 및 주변도시	未 定	人口 6 萬 규모 人口 15 萬 규모 人口 30 萬 규모
公共廳舍 및 공무원주택	40억달러	

〈資料〉〈表 - 11〉과 같음.

〈表-18〉 이라크의 戰後 復舊事業 우선순위 전망

		工 種
1	순 위	부상자 치료를 위한 병원시설 확충 및 재활교육 기관 건립
2	순 위	석유 및 가스생산 시설, 석유수출시설(항만 및 부대시설),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파이프라인(42인치, 670km 발주예정, EIU 88. 7월 자료)
3	순 위	발전소 및 송·배전시설, 시멘트공장, LNG, LPG 공장, 각종도로

註：이라크政府 당국 및 현지진출 건설업체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으로 보이는데, 그 까닭은 ① 생산기반의 취약에 따른 生必品輸入의 급증과 ② 전재복구 및 개발투자의 확대에 따른 건설자재수입의 증가 ③ 輸入代替産業의 육성을 위한 기자재 및 原料商品의 구매증대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産業研究院은 1989~93년중 이라크의 연평균 상품수입 규모를 약 214억달러로 전망하였는바, 수입확대 예상품목은 〈表-15〉와 같다.

한편 이라크의 건설수요는 이란보다 적을 것 같다. 우선 전쟁기간중 이라크의 피해규모를 보면, 이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경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日本의 中東經濟研究所는 1985년말 현재 固定資産 피해액을 이란 250억달러, 이라크 82억달러로 추정한 바 있다. 또한 전쟁기간중에도 이라크는 送油管 건설, 精油시설의 복구 등에 연평균 약 40억달러의 자금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건설수요의 압력요인을 전쟁기간중 이미 많이 완하시켰던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1989년 이후 5개년동안 이라크의 건설발주액은 이란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産業研究院은 연평균 약 71~77억달러로, 海外建設協會는 연평균 약 64억달러로 전망하였다. (〈表-16〉 참조).

끝으로 KOTRA 해외무역관이 작성한 戰後 복구추진 예상사업과 이라크 정부당국 및 현지진출 건설업체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복구사업우선순위 전망은 각각 〈表-17〉 및 〈表-18〉과 같다.

IV. 맺는 말

이란과 이라크 양국의 시장잠재력은 매우 크다. 이란의 경우 인구가 50백만명이 넘고, 1인당 GNP도 1986년

말 현재 3천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原油의 확인 매장량만 보더라도 929억배럴로서 세계 제4위이고, 연간 최대 산유능력도 곧 4.5백만B/D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라크의 경우에는 인구가 16백만명이 넘고 1인당 GDP가 1986년말 현재 3.3천달러를 상회하며, 1987년의 수입 총액은 115억달러로 이란보다 오히려 그 규모가 크다. 또한 原油의 확인매장량이 1,000억배럴로서 세계 제2위이고, 연간 최대 산유능력도 곧 이란과 비슷한 4.0백만 B/D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란과 이라크 양국의 상품 및 건설시장 규모가 전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만약 油價만 회복된다면 양국의 시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西獨, 日本, 英國 등의 선진국은 물론 터키와 같은 중진국들도 보다 유리한 金融條件을 제공하는 등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쟁기간중에 사상주채원과 건설업체가 이란과 이라크가 필요로 하는 물자를 공급하고 건설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양국정부에 많은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만 활용한다면 對 中東 상품수출과 건설진출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란과 이라크는 그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兩國市場에 대한 접근방식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이란시장의 경우에는 상품분야에 있어서 비교적 전망이 밝으나, 플랜트 및 건설분야에서는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이란의 유망 輸入商品分野는 전기·전자제품, 전선·전화설비, 비료, 유화제품 등 화학원료, 섬유사 및 직물, 철강, 타이어 및 튜브 등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들이다. 그러나 이란은 재원부족으로 이 중 일

부 품목의 상품교역마저 360~720일 조건의 유전스 거래와 求償貿易을 희망하고 있어 對이란 상품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 및 금융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한편 일반 토목공사 등의 건설분야에서는 이란이 이미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다가 전후의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이란이 대부분 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大型플랜트의 경우에는 이란측이 우리나라와의 협력의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그러나 이란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경제활동 參與幅을 확대할 방침이므로 수입대체산업을 중심으로 한 中小型플랜트분야에 대한 진출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對이란 플랜트수출 확대를 위해서 大型플랜트의 경우 선진국기업과 컨소시엄을 형성하거나 下都給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스럽

고, 中小型플랜트의 경우에는 중장기 공급자신용의 제공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채권회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사업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급자신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라크의 경우에는 상품시장과 건설시장 모두 우리나라의 진출전망이 밝다. 이라크가 필요로 하는 상품이 대부분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고, 건설분야에 있어서는 건축·토목공사의 비중이 높아 시공기술이 뛰어난 우리 건설업체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라크는 外債가 많은데다가 상품 및 건설대금의 지급을 연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對이라크 진출시 이 점에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한국수출입은행, 輸銀調查日報 1988. 8월호〉

□ 해외단신 □

에콰돌 Oriente지역의 외국石油

에콰돌의 1982年 石油法 發效以後 國營石油社(Cepe)와 契約를 체결하였던 國際石油社들의 에콰돌내에서의 活動이 활기를 띠고 있다. BP, Oxy, Conoco社들을 비롯한 外國石油社들은 鑛區에서 石油를 發見하였는데 특히 Oriente地域의 모든 鑛區에서는 石油가 發見되었다.

또한 기타 石油社도 곧 探査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BP社는 7鑛區에서 石油를 發見하여 에콰돌 石油開發의 선두주자로 부상하였는데 최근 Cepe의 Paraiso와 Pucuna 發見과 연결된 것으로 보여지는 Payamino 油田發見의 商業性確認과 鑛區統合의 승인을 Cepe에 요청하였다.

Occidental社는 85년에 石油法 발효이후 처음으로 15鑛區를 분양받아 최근 1,200b/d의 原油(API 23°)를 試驗生産하였고 同鑛區에서 마지막 探査井을 計劃中이다.

Oxy社는 15鑛區의 發見을 평가하고 있으며, 부존층 擴張事業을 위해 약 2년간이 所要될 探査作業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Conoco社는 16鑛區에서 “Daimi-1” 發見井에 이은 다른 探査井 “Gintr-1”을 시추중이다.

Exxon社는 8鑛區에서 2번째 探査井을 시추중에 있는데 첫번째 探査井에서는 710b/d의 원유(API 13°)를 試驗生産하였다.

한편 Tenneco社는 12鑛區에서 4개의 探査井試錐計劃中 첫번째 “Tigrillo-1” 探査井을 시추중에 있으며, Elf社도 11月中에 14鑛區에서 첫번째 探査井 “Sunka-1”을 시추개시할 예정이다. Uncoal社는 13鑛區, ARCO社는 10鑛區에서 物理探査를 시작할 예정이다.

Texaco社와 Pecten社는 에콰돌 연안 6鑛區에서 3번째이자 마지막인 探査井 “Calceta-1”을 試錐하기 시작했는데 2개의 探査井을 실패하였다.